

스틸 얼라이브

글. 이성휘 (큐레이터, 하이트컬렉션)

작가 정아람은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개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간 작가는 오늘날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미디어와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으며, 특히 이번 개인전 《나를 위한 말하기》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혐오 사건 및 이로 인해 촉발된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여성의 목소리에 우선 집중하였다. 이 전시의 주요 축이 젠더와 개인의 생존이라는 문제이지만 그는 평소 자신의 작업이 다루는 범위를 특정 이슈로 국한시키지는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번 전시에는 총 세 점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우선 〈우연히 살아 남은 내가 당연히 살아 남았어야 할 너에게〉(2016/2018)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당시 여성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발화 방식에 주목한 작업이다. 정아람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포스트-잇 메시지 아카이브 중에서 상당수가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 주목하였다. 작가는 익명의 개인들인 반복적으로 남긴 이 말이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곧 타인의 희생이 자신들의 삶과 무관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지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한 작가는 이 익명의 개인들의 말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원고문을 만들었고, 이후 한 여성 이주자의 음성을 통해 원고낭독을 시연하고 이를 전시장에서는 영상으로 상영하였다. 이 작업의 화면에는 원고 낭독 촬영 당시 보조 장치로 쓰인 프롬프트 위로 텍스트가 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이주자의 다소 서툰 발화는 일차적으로는 원고문의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다른 층위에서는 한 집단의 소수자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 혹은 관계의 레이어는 이 작품이 포스트-잇 메시지의 원저자인 한국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넘어서 또 다른 권력구조 내 타자의 생존에 대한 발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eer to Peer, Woman to Woman〉(2017-2018)은 근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로 인하여 불안과 감시의 장소가 된 공중화장실의 큐비클 구조를 가져와 작업하였다. 작가는 전시장 안에 일종의 공간적 재현을 시도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몰카 촬영을 막기 위한 (사소한) 행위를 함께 하도록 동참을 유도하였다. 작가는 이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의 젠더 위계적 응시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시도가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 잠재적 협력의 공간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불특정한 개인들이 행한 여러 시도들, 즉 휴지로 화장실 내부의 구멍을 막거나, 갑옷이나 탈을 쓴 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온라인에 게시한 비디오를 재해석 또는 샘플링하여 이를 전시장의 큐비클 구조 안팎에 재배치 하였다.

〈공공 신체 프로토콜〉(2015/2018)은 여성 퍼포머들이 서울 도심 거리에서 진행한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작업이다. 전시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 장소는 대표적인 시위 장소인 종로의 보신각 광장(2015년 버전)과 이번 개인전이 열린 스페이스 월링앤딜링이 위치한 방배동 거리(2018년 버전)다. 작가는 시위 진압 장면들에서 관찰된 행위들을 토대로 퍼포먼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퍼포먼스는 긴급상황에서의 구조 매뉴얼이다. 작가는 "퍼포머들이 상호 의존적이며 보조하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협업자들 사이의 관계적 행위로 번역하기"를 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우선 이 작업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데, 너털 류워가 "여성과 인종화된 소수자의 존재는 외부자로서 현재 내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인 그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다. 신체규범이 아닌 그들은 공간에 자리 잡을 확고한 권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부자"라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1] 류워는 사회적 공간에는 특정 유형의 신체들이 암묵적인 점유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공간은 비어 있지 않고 누구든 차지하도록 개방되어 있지만 신체와 공간은 연관성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 반복, 경쟁한다. 어떤 특정한 신체 유형들이 암묵적으로 특정 지위의 자연스러운 점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그 공간에 속할 권리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반면 어떤 이들은 무단 침입자로 표시된다. 그들은 신체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침입자이다. 특정한 신체유형과 특정 공간의 조음에는 분명 변화의 여지가 있다. 변화란 신체들이 이제까지 위치되어온 방식과 결별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하였다.[2]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공간에서 내부자일까 외부자일까? 너털 류워는 공간침입자가 사회적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복잡한 성격을 지적하는데, 특히 "외부자가 어떻게 외부자인 동시에 내부자가 되는지"에 대해 말

한다. 그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회 귀적과 하비투스 덕분에 별다른 무리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성의 제도적 서사에는 그것의 육화된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부인(denial)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면서 말이다.[3]

한편, 정아람 작가 스스로도 전시가 젠더와 개인의 생존이라는 문제를 다루지만 특정 이슈로 국한시키지 않고 싶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필자 또한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하고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비슷한 입장이다. 젠더나 소수자 문제는 정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전문적 학습의 정도에 따라 이해의 깊이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이 학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저마다의 부조리함과 불편과 부당을 주장한다. 그리고 퓨워의 지적대로 개인의 사회 귀적과 하비투스에 따라서 타자의 생존에 대한 감수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래서 수많은 '나'들이 '살아 남았다'라고 자조했을 때, 또 다른 '나'들은 다른 의미의 '스틸 얼라이브'를 외친다.[4] 난 안 죽는다고.

각주

[1] 너털 퓨워 지음, 김미덕 옮김, 『공간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서울: 현실문화, 2017), 23.

[2] 위의 책, 23.

[3] 위의 책, 29.

[4] 요즘 게임들 중에는 인공지능을 거대한 악의 캐릭터로 그리면서 여성성을 부여하곤 하는데, 일례로 게임 <포탈>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운영체제 글라도스가 등장한다. '스틸 얼라이브'는 주인공 첼이 글라도스를 죽여 엔딩을 맞이할 때 나오는 노래인데, 글라도스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암시다.